



「엄마」라는 타이틀 --- 아이를 키운다는 것

이번에 미미타로는 통역, 번역, 어학교사로 활약중이신 류 에이 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때 중국잔류 일본인의 가족으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왔습니다. 대학교에서 일본어 교육학을 전공하고 중국에서는 모어를 다시 배워 통역과 번역 일에 종사하고

있지요. 두 아들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저의 육아는 일단락된 셈입니다. 육아상담의 통역을 한 적도 있어서 저의 경험을 돌아보며 문화환경이 다른 곳에서의 육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통감하곤 합니다.

육아문화는 나라, 세대,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에 각양각색 입니다. 제가 자란 중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매로 다스리며 예의를 가르치고 아이는 울면서 용서를 비는 것이 보통으로, 부모 자식의 관계는 엄연한 상하관계로 아이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지만 아직도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엄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지요.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을 복도에 세워 벌 주는 광경은 이제 볼 수 없게 되었고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대등하게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국간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아이를 엄하게 야단치거나 집 밖에 서 있게 하거나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당연하지만, 일본에서는 경우에 따라 학대로 보여 생각치도 못한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자기 나라의 문화의 계승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맞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일본의 법률이나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육아에 관한 정보수집이나 상담을 할 수 있고 부모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육아상담의 통역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가진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상담원은 각 케이스별로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 조언을 합니다. 그중에는 아이에 대한 마음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해서 원활한 관계를 못만들거나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단지 평온한 가정이나 상냥한 엄마일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모가 육아에 대해 다시 배우고 새로운 출발점을 찾게 되는 장면을 접하면서 이들에 대한 서포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곤 하지요.

저도 이런 상담의 현장에 있으면서 제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아이를 믿고 충분히 지켜보지 못했던 점, 내가 키워졌던 스타일 그대로인 엄한 엄마였지요.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없이 고립된 상황이었고 제자신도 여유가 없어 단지 그냥 필사적이었기 때문에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순조롭지 못한 엄마라는 역할이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때 아들의 반항이 너무 심해서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힘든 시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기로 당시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하지만 괴롭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나가는 법이지요. 성인이 된 아들에게 그때는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친구처럼 평등하게 대해주길 바랬다는 예상밖의 대답을 하더군요. 아들이 원했던 것과 저의 육아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도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시기가 끝났다는 실감이 들어 감개무량했습니다.

저의 아이키우기는 끝났지만 아직도 「엄마」는 현재진행형이지요. 그리고 다음 무대에서는 아이와 대등하고 즐겁게 지내고 싶습니다. 아이키우기가 서툰 엄마였지만 그래도 자기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라서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거주지 관청에서 여러가지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아기는 영사관(대사관)이나 출입국관리국에서의 수속도 해야 합니다.

◇ 관청에서 하는 수속

- 1 출생신고...아기가 태어나면 14 일 이내에 기본적으로 부친이나 모친이 관청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지참물 : 모자건강수첩, 출생신고서 / 출생증명서 (출산한 병원에서 받습니다.)
* 영사관 (대사관) , 입국관리국 제출용으로 출생수리증명서를 2 부 받아두도록 합시다.
- 2 아동수당 . . . 중학생까지의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4 년도 내에 일부 변경 예정)태어난 다음 날부터 15 일 이내에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 3 어린이 건강보험 . .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어린이 보험증을 신청해 주십시오.
사회보험의 경우는 근무처에서 가입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 4 복지의료비조성(영유아) . . . 0 살부터 「복지의료수급권(영유아)」이 발행됩니다.
시가현에서는 미취학아(태어나서부터 6 살이 되는 최초의 3 월 31 일까지)에게는 핑크색의 수급권이 발행되며, 보험적용의 의료비는 자기부담이 없습니다. 취학 후의 소아의료비조성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 대사관・출입국관리국에서의 수속

- 태어난 후 30 일 이내에 출입국관리국에서 아기의 재류허가를 신청합니다.
지참물 : 부모의 여권, 재류카드, 출생수리증명서, 아기를 포함한 세대의 주민표
- 각국 영사관(대사관)에서 아기의 국적을 취득하고 여권을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각 영사관(대사관)에 확인하도록 합시다.

～모자의 건강을 위해서～

출산후 모자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아기의 각종 검진이나 교실, 자택방문의 대부분이 무료이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합시다.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상담하도록 합시다.

- 산후검진 출산한 병원에서 산모의 건강상태, 아이의 발육이나 건강을 확인합니다.
- 신생아방문 생후 2 개월 정도까지 보건사가 자택을 방문, 산모의 회복상태와 아기의 발육상황을 확인합니다 (모자수첩과 함께 받는 「신생아방문의뢰서」를 보건센터로 보내서 신청합니다).
- 예방접종 생후 2 개월부터 소아과 의사와 상의하여 계획적으로 받도록 합시다.
지참물 : 모자수첩, 예진표
★예방접종 다언어정보 예방접종 리서치센터
- 영유아검진 4 개월 검진, 10 개월 검진, 1 살 6 개월 검진, 2 살 6 개월 검진, 3 살 6 개월 검진 (지역에 따라 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참물 : 모자수첩, 검진수진표, 건강보험증, 복지의료수급권(영유아)
※ 다언어로 문진표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약시 확인해 주십시오.
- 이유식교실 각 지역에서는 이유식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등이 이유식에 관한 지도나 고민에 대응합니다. 나라나 문화, 종교 등 이유식이 다르겠지만 참고가 될 것입니다.



고민이 있다면 상담합시다!



아기의 성장, 발달이 걱정일 때...	우선 영유아검진을 해 주셨던 의사와 상담합시다. <u>지역 보건센터</u> <u>지역발달지원실·센터</u> 발달장애에 관한 외국인 보호자용 팸플렛 (발달장애정보·지원센터)  
육아가 불안할 때...	<u>지역 가정육아상담실</u> 지역 관청에 상담합시다. <u>고코론다이얼 전화상담</u> TEL : 077-524-2030 (아동·육아 응원센터. 전화 혹은 면접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u>아동상담소 상담전용 다이얼</u> TEL : 0120-189-783
혹시 학대인가...	<u>아동상담소 학대 다이얼</u> 「189」
아기를 잠시 맡기고 싶은데... (사전등록이 필요)	<u>패밀리·서포트·센터</u> 「아기를 맡기고 싶은 사람」, 「아기를 맡고 싶은 사람」을 연결, 보육소까지의 송영과 보호자의 질병 등의 경우 아기를 맡아줍니다. <u>임시보호사업</u> 보호자가 아프거나 불일이 있을 경우 아기를 보육소 등에서 일시적으로 봐 드립니다. <u>병아·병후아 보육</u> 아기가 병에 걸려서 보호자가 집에서 보육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이나 보육소 등에서 아기를 일시적으로 보육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보육소에 아기를 맡기고 싶은데...	보육소, 인정 어린이집, 인가와 어린이 시설 등에서 0살부터 아기를 맡길 수 있습니다. 시설의 이용에는 거주지의 관청에서 이용을 위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관청에 상담합시다.
혼자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경제지원, 취로지원 이외에도 집안일이나 육아에 대한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관청에 상담합시다.
아기와 함께 외출하고 싶은데... 	<u>지역 육아지원 거점</u> 육아 중인 부모와 아기들이 모여 상호 교류, 불안,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u>아동관</u> 건전한 놀이를 통해 어린이의 발달을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 <u>시가현립 비와코코도모노구니</u> 놀이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 아동관입니다. 다카시마시 아도가와쵸 기타후나키 2981

★ 언어소통이 걱정되는 경우는 「시가외국인상담센터」로 전화주십시오. TEL: 077-523-5646



SHIGA SMILE BABY PROJECT ~감사가 담긴 선물~

시가에서 태어난 아기와 그 가족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사회전체가
 출산·육아를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감사의 선물」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상: 1살 미만의 아기 ※ 사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미타로 정보

★ 행락의 가을! 떠납시다!

- 시가라키 다누키(너구리)의 날 11/8(수)
온 동네가 너구리의 도자기로 가득 찹니다.
시가라키쵸 나가노
- 미치노에키 아그리파크 류오
10 월은 고구마, 11 월은 감을 수확하는 체험.
가모군 류오쵸 야마노우에 6526
- 키노시타칸세 아이스아리나
스케이트 등 빙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즈시 오에쵸 17-3



★ 단풍을 즐기자!

- 에젠지
11 월 중순~12 월 상순
히가시오미시 에젠지 다카노쵸 41
- 국보 코난산잔 단풍순례
11/10(금)~11/30 (목)
「젠스이지」 코난시 이와네 3518
「쵸쥬지」 코난시 도지 5-1-11
「쵸라쿠지」 코난시 사이지 6-5-1



★ 교린보 단풍

- 11/1(수)~12/15 (금)
오미하치만시 아즈치쵸 이시데라 1145



★ 스키를 즐기자!(12 월중순부터)

- 요고고겐리조트 · 얏프
나가하마시 요고쵸 나카노가와우치 373
- 구츠키 스키장
다카시마시 구츠키 미야마에보 180-1
- 구니자카이고겐스노우파크
다카시마시 마키노쵸 노구치
- 하코다테야마스키장
다카시마시 이마즈쵸 히오키마에
- 비와코바레
오즈시 키도 1547-1
- 그란스노우 오쿠이부키
마이바라시 코츠하라 오쿠이부키



미미타로 뉴스

★ 비즈니스 일본어교실 / JICE(무료)

신청 : 하로워크

- 코난시 코세이 문화홀
11/29(수)~2/28(수) 야간 레벨 1
- 모리야마시 모리야마역앞 종합안내소
11/21(화)~2/16(금) 야간 레벨 2
- 온라인
11/20(월)~2/13(화) 야간 레벨 3
11/14(화)~2/6(화) 야간 레벨 2

★ 시작하자! 일본어 단기 집중코스 in 히노쵸

- 내용 : 생활 일본어
- 기간 : 11/8~12/27 매주 수요일
18:30~20:10
- 장소 : 히노공민관(히노쵸 나카미치 2 의 12)
- 대상 : 16 세 이상으로 일본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



- 수강료 : 1000 엔 (교재비)
- 마감 10/13 (금)
신청 후 레벨 체크합니다.



문의 : 시가현지역일본어교육추진사업 사무국(시가 YMCA)

Email : nihongo-suishin@shigaymca.org

Tel (일본어) : 0748-33-2420

★ 외국에 루트를 가진 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진로 가이드스」

입관 상담 코너도 있습니다!

- 일시 : 10 월 22 일(일) 13:30~16:00
- 장소 : 「G-NET 시가」 대홀 (오미하치만시)
- 대상 : 외국에 루트를 가진
아동(초등학교 5 학년~중학생)과 그
보호자 등

문의 시가현국제협회 Tel 077-526-0931

시가외국인상담센터(시가현국제협회내)

Tel 077-523-5646 Fax 077-510-0601

Email : mimitaro@s-i-a.or.jp

미미타로 다음호는 1 월에 발행할 예정입니다.